

지역 매 아리

김제시,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9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얼마 남지 않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 대비하여 집행행동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고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는 한편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부서별 상반기 월별 집행계획을 정하고 1억원 이상 사업 중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각종 시설비 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상반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제시는 정부에서 목표한 집행률 55.5%(2,769억원)보다 높은 60%(2,990억원)의 자체 집행률을 목표로 매월 신속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전대식 부시장은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정부의 주요 사책인 만큼, 긴급입찰 제도 활용 및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등 신속집행 추진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전부서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브랜드 '청년 JUMP-UP'

'JUMP프로젝트' 업그레이드,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완주군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 JUMP'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추진돼 완주의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완주군은 9일 청년정책 JUMP-UP프로젝트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JUMP프로젝트'를 중간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담은 UP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용역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효과적인 추진으로 주목을 받았던 청년취업허우스,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청년교류거점공간, 청년참여 예산 등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 청년이 갖는 새로운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도 발굴됐다.

청년내일센터 설치, 청년멘토그룹 양성, 청년마을학교 및 생활기술학교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과 청소년 협업 프로젝트, 저임금청년 저축 지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제안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은 기존 정책방향이 '이주'와 '정주'에 중심을 뒀다면 최근에는 '교류'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반영했으며, 청년이 단순히 사업수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는 "완주군의 청년 JUMP는 전국에서도 인정하는 잘 된 정책이다"며 "청년 JUMP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JUMP-UP프로젝트가 완주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용역결과를 세

밀하게 분석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해 '청년이 행복한 완주'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6년부터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청년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청년완주 JUMP프로젝트는 '완주에서 놀고, 먹고, 완주에서 살자'라는 주제아래 job(일자리), union(주거·정착), main(참여·교류), pride(교육·문화·복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9일 청년정책 JUMP-UP프로젝트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내리 제품 기술과 안정성 인정받아"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 장애인 교육·훈련 강화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2011년 4월에 개소하여 일반 고용이 어려운 30명의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와 여러 유해물질 검출 등으로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과 위생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물티슈 생산에 있어 근로 장애인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자체 실험실을 두어 세균과 미생물검사를 매일 진행함에 따라 작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해내리 물티슈에 대한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KOTIT 시험연구원에 해내리 물티슈를 안정성 시험 의뢰 결과 세균, 진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불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에게 안정성이 검증된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판촉용 1매, 10매, 20매, 30매와 다매용 72매, 80매를 생산하고



있으며 무자극과 향균을 인증받은 해내리 물티슈를 2년 연속 KTX 내 1매용으로 납품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유호열 원장은 "해내리 제품이 기술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데 대해 근로 장애인과 직원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며, 창출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및 취업지원 사업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발로 뛰는 '현장행정' 박차

김제시 전대식 부시장은 9일 요촌동 동아아파트와 신흥동 황산근로자아파트를 방문하여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및 자율점검 홍보를 실시했다.

안전모니터봉사단과 함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변형 여부, 소방시설 관리 상태 및 경보시설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율점검표를 입구에 부착하고 홍보 방문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적극 홍보했다.

김제시는 이번 달 19일까지 272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보강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율 점검표는 민원인이 많은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토록하여 시민들이 위협요소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전대식 부시장은 "공공시설 뿐 만 아니라 안전점검에 미치지 못하는 민간 시설물까지 자율점검을 통해 위협요소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모든 김제시민이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보존가치 큰 보호수·노거수 보호한다

완주군, 총 10본 선정해 외과수술·토양개량 등 관리

완주군이 지역을 상징하거나 마을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보호수와 노거수를 관리한다.

완주군은 9일 보호수와 노거수 10본에 대한 생육환경개선, 뿌리·수간 부위 부패방지를 위한 외과수술 등을 진행하는 상반기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 10본은 부패부위가 크고

콘크리트 구조물 등 지장물로 인한 피해가 큰 보호수, 노거수 선정됐다.

군은 총 사업비 7400만원을 투입해 봉동읍 장기리 임거마을 느티나무의 7개소 10본에 대한 외과수술과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5월말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군은 나무의 생육환

경 개선은 물론이고 수목의 원활한 호흡작용으로 미세먼지의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보호수·노거수는 지역의 고사와 전설이 담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다"며 보호수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3월에도 재해 위험이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가지치기를 완주군 패트롤 사업단을 활용 실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2019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을 위해 지난 8일 봉동읍의 한 교회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박성일 완주군수, 국가안전대진단 현장행정 실시

박성일 완주군수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에 박차를 가했다.

9일 완주군은 박성일 군수가 2019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을 위해 지난 8일 봉동읍의 한 교회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박 군수를 포함한 완주군 공무원 7여명 및 민간전문가 4명이 참석해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해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안전진단이나 보수보강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설 소유주 및 군민들에게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제2차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5월 31일 까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병철)에서는 전북도에서 아심차게 추진 중인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올해 본사업에 돌입함에 지난 3월 31일까지 1차 양파·마늘 접수 완료하고, 2차로 "건고추·생강·노지감자·대과 4개 품목"에 한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2개월

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에서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북도 '보랏빛 농민, 재밌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실현하는 삼락농정의 주요 사업으로 지원 범위는 품목별(건고추·생강·노지감자·대과 4개 품목) 재배면적이 1,000

㎡~1만㎡이고,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해당품목을 직접 생산하여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지역농협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은 계통 출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농협,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계약서 사본 첨부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